

四象體質分類檢査의 準據妥當化 研究

(性格要因檢査-16PF-와의 比較 分析)

李廷燦 · 高炳熙 · 宋一炳

I. 緒 論

東武 李濟馬 先生의 東醫壽世保元이 出刊된 지 90餘年の 時間이 지나면서 그 哲學的 意義 및 臨床的 活用價値가 날로 高揚되어 國內外的으로 活潑한 研究活動이 이루어지고 있다.

四象醫學 胎動의 原典이라고 할 수 있는 東醫壽世保元은 東武가 59歲가 되는 1894(甲午)年에 그때까지 그가 完成한 哲學的 바탕위에서 새로운 次元의 醫學을 成立시킨 것으로¹⁾ 그의 四元 構造的 宇宙觀 속에서 宇宙自然의 法則을 發見하며 人間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哀怒喜樂의 象을 基幹삼아 重하고 險한 疾患의 治療에 있어서나 發病의 動機에 있어서나 四個性情의 偏着을 重視하는 哲學的 醫學의 集大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²⁾

다시 말해 東武의 四象說은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의 敍述에 의해 人間을 四體質로 分類하고 그 生理, 病理를 展開한 體質醫學的 立場을 堅持하고 있지만, 이것은 體質醫學이라는 局限된 範疇, 즉 生理組織學的 機能에 의한 人間의 體質만을 論하려는 醫學이 아니고³⁾ 한 人間의 身體的 構造와 生理的 機能뿐 아니라 心性的 定意

및 精神的 欲求로써의 哀怒喜樂을 함께 다루고 더 나아가 人間의 倫理的 生活의 根源으로써의 好善惡惡과 宇宙論的 原理로써의 生命을 根幹으로 하는 全體的 構造의 統一體로 看做한 四元構造의 新人間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⁴⁾

그러나 四象醫學의 原理論에 있어서 극도로 簡單明瞭한 敍述과 儒敎哲學의 背景에서 出發하는 難解한 用語들의 問題로 인하여 많은 主要한 部分들이 醫學的 研究에서 除外되어 왔던 事實도 否定할 수 없다.

四象醫學의 臨床基礎分野라고 할 수 있는 四象體質의 正確한 分類問題도 嚴密한 客觀性을 確保해야만 될 部分으로써 그 間에 많은 研究와 努力⁵⁾⁶⁾⁷⁾⁸⁾⁹⁾¹⁰⁾¹¹⁾¹²⁾¹³⁾¹⁴⁾¹⁵⁾¹⁶⁾¹⁷⁾¹⁸⁾¹⁹⁾²⁰⁾으로 여러가지의 方法論이 提示되고 있긴 하지만, 前述했던 바 四象醫學이 內包하고 있는 性情中心의 人體生理理論을 充足시키고 確固한 理論的 根據를 갖춘 體質分類 方法이 開發되어져야 할 現時點에서 多角的이고 持續的인 研究가 切實히 要求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本 研究는 그와 같은 觀點에서 四象體質分類의 客觀化를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 壽世保元 原文에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立脚하여 製作한 金²¹⁾의 四象體質分類 檢査 設問 紙를 廉과 金의 性格要因檢査²²⁾와 比較 調査, 研究하여 妥當度를 點檢, 上昇시켜 보고자 하는 目的으로 施行된 것으로 被檢者의 說問資料를 蒐集하고 性格要因檢査와 함께 統計處理, 觀察하여 有意性 있는 結論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研究 方法 및 節次

1. 被驗者

慶熙大學校 漢醫科 大學 附屬 漢方病院 四象醫學 診療室 및 地方所在 個人 漢方醫院 2個所에 來院한 一般患者 105名과 一般 大學生 134名을 觀察의 對象으로 하여 四象體質 分類檢査를 實施하였다. 全體 被驗者 220名中 男子는 147名이었고 女子는 94名이었다.

本 研究에 包含된 事例들의 人口統計學的 分布의 一環으로 性別에 따른 教育程度를 보면 <Table I>에 提示한 바와같이 國卒은 全體 220

名 中 女子가 8名으로 8.5%에 該當하였고, 男子는 한명도 없었다.

事例數(百分率)

<Table I> 性別에 따른 教育程度

學力/性別	男	女	合 計
國卒以下		8 (8.5)	8 (3.3)
中 卒	3 (2.0)	11 (11.7)	14 (5.8)
高 卒	24 (16.3)	28 (29.8)	52 (21.6)
大學以上	120 (81.0)	47 (48.9)	167 (69.3)
合 計	147 (61.0)	94 (39.0)	241 (100.0)

中卒은 男子가 2.0%, 女子는 11.7%였으며, 高卒은 男子 16.3%, 여자 29.8%였고, 大學 以上の 學歷은 男子 81%, 女子 48.9%였다.

한편 性別에 따른 結婚與否 <Table I-1>, 職業 <Table I-2>, 體質 <Table I-3> 등의 分布는 아래에 提示한 表와 같았다.

事例數(百分率)

<Table I-1> 性別에 따른 結婚與否

結婚狀態 性別	既 婚	未 婚	別 居	死 別	同 居	合 計
男	23 (35.4) (19.0)	98 (71.0) (81.0)				121 (58.7)
女	42 (64.6) (49.4)	40 (29.0) (47.1)	1 (100.0) (1.2)	1 (100.0) (1.2)	1 (100.0) (1.2)	85 (41.3)
合 計	65 (31.6)	78 (67.0)	1 (0.5)	1 (0.5)	1 (0.5)	206 (100.0)

事例數(百分率)
 <Table I-2> 性別에 따른 職業分布

性別	男	女	合計
職業 事務 및 行政職	6 (75.0) (4.5)	2 (25.0) (2.3)	8 (3.6)
研究 및 專門職	12 (35.3) (9.0)	22 (64.7) (25.3)	34 (15.5)
私企業 經營	3 (100.0) (2.3)		3 (1.4)
醫療 保健職	25 (65.8) (18.8)	13 (34.2) (14.9)	38 (17.3)
工業 및 技術職	1 (100.1) (0.8)		1 (0.5)
農水産業	1 (100.0) (0.8)		1 (0.5)

性別	男	女	合計
職業 藝術 및 體育		1 (100.0) (1.1)	1 (0.5)
서비스職	1 (16.8) (18)	5 (83.3) (5.7)	6 (2.7)
家庭主婦		28 (100.0) (32.2)	28 (12.7)
單純 勞務職		1 (100.0) (1.1)	1 (0.5)
其他	84 (84.8) (63.2)	15 (15.2) (17.2)	99 (45.0)
合計	133 (60.5)	87 (39.5)	1 (0.5)

事例數(百分率)

<Table I-3> 性別에 따른 體質分布

體質 性別	太陰	少陽	少陰	合計
男	8 (80.8) (30.8)	6 (100.0) (23.1)	12 (80.0) (46.2)	26 (83.9)
女	2 (20.0) (40.0)		3 (20.0) (60.0)	5 (16.1)
合計	10 (32.3)	6 (19.4)	15 (48.4)	31 (100.0)

2. 研究方法

1) 檢査內容

本 研究는 四象醫學的 體質分類의 客觀化를 爲한 試圖의 하나로서 위의 全體 被檢者 220名에게 四象體質分類檢査 說問紙 및 性格要因檢査 說問紙를 同時에 作成하도록 하여 아래의 方法으로 統計處理 하였다.

2) 統計處理方法

四象尺度들의 性格要因檢査와의 關係性 및 特性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個別 集團 差異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診斷 正確率을 檢證하기 위하여 判別分析을 實施하였다.

III. 研究結果

1. 四象體質分類檢査의 內的妥當度²³⁾

四象體質分類檢査에 收錄된 四象尺度들의 內的妥當度를 알아보기 위해 一般 性格檢査인 性格要因檢査와의 準據妥當度를 구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男性集團 119例에 있어서의 四象尺度와 性格要因檢査와의 相關關係를 分析하였다. 分析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Table II)

1) 太陽尺度와의 相關關係

太陽尺度는 性格要因檢査의 溫情性, 情熱性, 大膽性과 같은 外向的 尺度들에서 $P < 0.01$ 의 높은 正的 相關關係를 보였으며 自我強度 尺度에서 역시 $P < 0.05$ 의 有意性을 나타냈다.

2) 少陽尺度와의 相關關係

少陽尺度는 性格要因檢査의 情熱性 尺度에서 $P < 0.05$ 의 正的 相關關係(positive correlation)를 보였다.

3) 太陰尺度와의 相關關係

太陰尺度는 性格要因檢査의 溫情性, 情熱性, 大膽性 尺度와 $P < 0.01$ 의 높은 否的 相關關係(negative correlation)를 보였고 自我強度 尺度와는 $P < 0.05$ 의 否的 相關關係(negative correlation)를 보였으며 罪責感 尺度와는 $P < 0.01$ 의 正的 相關關係(positive correlation)를 보였다.

4) 少陰尺度와의 相關關係

少陰尺度는 性格要因檢査의 溫情性, 情熱性, 大膽性 尺度와 $P < 0.05$ 의 否的 相關關係(negative correlation)를, 罪責感 尺度 및 不安感과 같은 不安靜性 尺度와는 각각 $P < 0.01$, $P < 0.05$ 의 正的 相關關係(positive correlation)를 보였다.

81例의 女性集團에서 보이는 四象尺度和 性格要因檢査間의 相關關係에 대한 分析의 結果를 보면, 男性集團의 結果와는 달리 大部分의 尺度에서 거의 相關이 없었으며, 但只 太陽 尺度에서는 大膽性 尺度和 否的 相關을, 少陽尺度에서는 敏感性 尺度和 正的 相關을, 太陰 尺度에서는 높은 知能과 否的 相關을 보여 豫想되지 않았던 相關類型을 보였다. 이러한 結果는 四象體質分類檢査說問紙가 女性集團의 경우에는 適切한 特性을 抽出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推測해 볼 수 있다.(Table III)

따라서 이에 대한 再解析 및 적절한 補完作業

이 要求된다 할 것이다.

2. 四象集團의 性格要因檢査尺度別 變量分析 結果

四象尺度和 性格要因檢査와의 直線的 相關關係 뿐만 아니라 特性 差異를 알아보기 위해 各 尺度의 點數 分布를 上中下 세 集團으로 分類하여 性格要因檢査의 尺度別 平均差異를 變量分析하였다. 女性集團의 結果는 有意性이 發見되지 않아 除外한다.

1) 太陽集團의 性格要因檢査 尺度別 變量分析 結果

太陽尺度 上中下 集團別 性格要因檢査 尺度에 대한 變量分析 結果를 보면 앞서 提示한 相關表에서 나온 結果와 마찬가지로 外向的 尺度인 溫情性, 自我強度, 情熱性, 大膽性 尺度에서 集團間 差異를 보였으며 相關 構造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自己充足性 尺度에서 集團間 差異를 보였다.(Table IV)

2) 少陽集團의 性格要因檢査 尺度別 變量分析 結果

少陽尺度에 대한 變量分析 結果는 相關構造에서 나타난 情熱성과 正的 相關關係(positive correlation) 이외에 溫情성과 大膽性 尺度에서 集團間에 差異가 나타났다.(Table V)

3) 太陰集團의 性格要因檢査 尺度別 變量分析 結果

太陰尺度의 上中下集團別 性格要因檢査尺度에 대한 變量分析 結果는 相關構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溫情性, 自我強度, 情熱性, 大膽性의 尺度에서 逆方向의 集團差異를 보이며 相關關係에서의 罪責感 尺度 외에 敏感性 尺度에서 集團差異가 나타났다.(Table VI)

4) 少陰集團의 性格要因檢査 尺度別 變量分析 結果

少陰尺度의 集團別 變量分析 結果는 情熱性과 大膽性등의 外向性 尺度에서 逆方向의 集團差異를 나타내며 罪責感과 不安感 尺度에서 有意性이 있는 集團間 差異를 보였다.(Table VII)

3. 診斷 正確率의 判別分析 結果
四象尺度와 性格要因檢査 들 다를 利用하여 專門 醫가 診斷 分類한 四象體質을 얼마나 正確히 豫

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判別分析한 결과 太陰, 少陽, 少陰集團 모두를 正確히 判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四象尺度와 더불어 性格 要因檢査를 四象體質로 使用할 수 있으며, 四象 分類檢査尺度의 補完作業에 性格要因檢査尺度를 活用할 수 있음이 示唆되었다.

(Table II) 16PF(性格要因檢査)와四象尺度와相關表(男子:N=119)

* : P < 0.05 ** : P < 0.01

16PF/四象尺度	太 陽	少 陽	太 陰	少 陰
溫情性	0.2987**	0.0774	-0.2861**	-0.2567*
自我强度	0.2790*	0.0497	-0.2138*	-0.1579
支配性	0.0583	0.0662	-0.1966	-0.0694
情熱性	0.4266**	0.2479*	-0.4195**	-0.2636*
道德性	0.0798	0.1051	0.0552	0.1442
大膽性	0.3877**	0.2098	-0.4770**	-0.2635*
敏感性	-0.0345	0.0158	0.2266*	0.0543
不信感	0.1026	0.0787	-0.1880	-0.0457
思辨性	0.0250	0.0398	0.1187	-0.0143
實利性	0.0474	-0.0127	-0.1197	-0.0631
罪責感	-0.2026	-0.0146	0.3638**	0.3278**
進歩性	0.0939	0.1037	-0.0595	-0.0729
自己充足性	0.0937	0.0959	0.0382	0.0819
統制力	0.0671	0.0014	0.1026	-0.0013
不安感	-0.0765	0.1254	0.1357	0.2199
높은 知能	-0.1172	-0.1738	-0.0204	-0.0654

그러나, 診斷判別分析에 使用된 被檢者數가 매우 制限되어 있어 이러한 結果가 一般化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被檢者를 對象으로 한 辨別研究가 要求된다 하겠다. 뿐만아니라 이 判別分析

에서 女子集團이 除外되어 있어 四象尺度의 補完이 이루어진 후에는 女子集團에 대한 正確判別率 分析이 要求된다고 하겠다.(Table VIII)

(TableIII) 16PF(性格要因檢査)와四象尺度와相關表(女子:N=81)

* : P < 0.01

16PF/四象尺度	太 陽	少 陽	太 陰	少 陰
溫情性	-0.0955	0.0388	0.1599	0.1122
自我强度	-0.2393	-0.1371	0.0469	0.0939
支配性	-0.0868	-0.0439	0.1458	0.1719
情熱性	-0.1653	-0.1623	0.0577	0.0547
道德性	0.0417	0.0263	-0.0425	-0.0078
大膽性	-0.2856*	-0.2024	0.1425	0.0748
敏感性	0.1639	0.2942*	0.0618	0.1495
不信感	-0.1643	-0.2440	0.1574	-0.0168
思辨性	-0.0196	0.0729	0.1704	0.1632
實利性	0.0155	0.0544	-0.0822	0.0072
罪責感	0.0226	-0.0499	0.0642	-0.1549
進歩性	-0.0362	-0.0463	0.1270	0.0665
自己充足性	-0.0099	-0.1393	-0.0851	-0.0293
統制力	0.1459	0.1549	-0.0151	0.1054
不安感	0.0957	0.0255	0.0204	-0.1376
높은 知能	0.0051	-0.1498	-0.2961*	-0.2184

(TableIV) 太陽集團의 16PF(性格要因檢査)尺度別 變量分析表(男子)

* : P < 0.05 ** : P < 0.01

集團 尺度	上 (N=41)	中 (N=48)	下 (N=44)	F 置	상 > 하
溫情性	33.41 (4.43)	32.15 (4.58)	30.23 (4.60)	5.33**	上 > 下
自我強度	34.88 (3.52)	33.21 (4.55)	32.52 (3.66)	3.94*	上 > 下
支配性	35.37 (3.77)	33.94 (3.14)	34.61 (3.79)	1.77	
情熱性	34.88 (3.93)	33.42 (4.56)	30.00 (4.79)	13.58**	上,中 > 下
道德性	34.29 (5.04)	34.29 (5.12)	33.59 (5.04)	0.28	
大膽性	33.39 (5.13)	32.29 (3.68)	28.70 (4.82)	12.58**	上,中 > 下
敏感性	30.76 (3.95)	31.44 (5.09)	30.75 (4.58)	0.34	
不信感	35.32 (3.05)	34.81 (2.84)	34.93 (3.67)	0.29	
思辨性	28.51 (3.65)	28.58 (4.67)	28.40 (3.31)	0.03	
實利性	30.80 (3.53)	31.75 (3.74)	30.64 (3.96)	1.18	
罪責感	30.24 (5.04)	30.17 (5.24)	32.36 (5.86)	2.36	
進步性	35.39 (4.50)	33.96 (4.54)	34.43 (3.89)	1.24	
自己充足性	32.88 (3.78)	30.68 (3.64)	32.30 (3.78)	4.16*	上 > 中
統制力	33.93 (4.27)	33.81 (4.84)	33.55 (4.72)	0.08	
不安感	30.56 (5.62)	29.87 (4.80)	31.23 (5.28)	0.76	
높은 知能	11.54 (2.37)	11.80 (2.14)	12.16 (2.18)	0.75	

(Table V) 少陽集團의 16PF(性格要因檢査)尺度別 變量分析表(男子)

* : P < 0.05 ** : P < 0.01

集團 尺度	上 (N=48)	中 (N=40)	下 (N=45)	F 置	
溫情性	33.00 (3.84)	32.35 (50.6)	30.23 (4.84)	4.21*	上 > 下
自我強度	33.60 (4.10)	33.60 (3.98)	33.29 (4.15)	0.09	
支配性	35.58 (3.65)	34.15 (3.40)	33.96 (3.52)	2.93	
情熱性	34.92 (3.97)	32.23 (4.42)	30.87 (5.28)	9.43**	上 > 中,下
道德性	35.00 (5.01)	32.93 (4.97)	34.07 (5.03)	1.88	
大膽性	33.40 (4.62)	30.73 (5.51)	30.00 (4.06)	6.64**	上 > 中,下
敏感性	31.27 (4.73)	30.58 (4.87)	31.09 (4.20)	0.26	
不信感	35.48 (2.95)	34.85 (3.38)	34.64 (3.25)	0.87	
思辨性	28.88 (4.09)	28.40 (4.27)	28.18 (3.43)	0.37	
實利性	30.92 (3.33)	31.30 (4.66)	31.09 (3.34)	0.11	
罪責感	31.58 (5.12)	30.98 (5.23)	30.16 (5.99)	0.80	
進步性	35.54 (4.94)	33.55 (3.99)	34.40 (3.76)	2.04	
自己充足性	32.31 (3.91)	31.58 (3.46)	31.75 (4.07)	0.45	
統制力	33.84 (4.64)	32.83 (5.22)	34.49 (3.85)	1.41	
不安感	31.98 (5.11)	29.83 (5.06)	29.67 (5.25)	2.88	
높은 知能	11.43 (2.46)	11.95 (2.08)	12.22 (2.00)	1.40	

(Table VI) 太陰集團의 16PF(性格要因檢査)尺度別 變量分析表(男子)

* : P < 0.05 ** : P < 0.01

集團 尺度	上 (N=49)	中 (N=43)	下 (N=41)	F 置	
溫情性	30.14 (4.21)	32.95 (4.86)	32.90 (4.53)	5.86**	中,下 > 上
自我強度	32.39 (3.71)	33.72 (4.48)	34.59 (3.73)	3.51*	下 > 上
支配性	33.88 (3.58)	35.14 (3.55)	34.90 (3.58)	1.64	
情熱性	30.61 (4.88)	33.35 (4.60)	34.63 (4.21)	9.13**	中,下 > 上
道德性	34.45 (5.10)	34.37 (5.11)	33.26 (4.92)	0.73	
大膽性	29.22 (5.21)	31.49 (4.36)	34.05 (3.83)	12.57**	下 > 上,中下
敏感性	32.29 (4.30)	29.95 (5.21)	30.56 (3.87)	3.37	上 > 中
不信感	34.73 (3.50)	34.65 (3.15)	35.71 (2.76)	1.45	
思辨性	29.46 (3.46)	27.47 (3.99)	28.46 (4.18)	3.02	
實利性	30.59 (4.23)	31.81 (3.42)	30.93 (3.45)	1.27	
罪責感	33.76 (5.41)	29.23 (5.35)	29.29 (4.15)	12.32**	上 > 中,下
進步性	34.47 (4.52)	33.95 (4.11)	35.29 (4.33)	1.02	
自己充足性	32.31 (3.75)	31.40 (3.59)	31.95 (4.17)	0.65	
統制力	33.94 (5.13)	34.49 (4.17)	32.78 (4.29)	1.52	
不安感	32.10 (5.10)	29.79 (5.63)	29.49 (4.53)	3.57*	
높은 知能	11.34 (2.44)	12.38 (1.81)	11.81 (2.28)	2.32	

(Table VII) 少陰集團의 16PF(性格要因檢査)尺度別 變量分析表(男子)

* : P < 0.05 ** : P < 0.01

集團 尺度	上 (N=47)	中 (N=36)	下 (N=50)	F 置	
溫情性	31.06 (4.18)	31.17 (4.85)	33.22 (4.82)	3.28*	
自我強度	32.68 (4.01)	32.94 (3.36)	34.66 (4.35)	3.47*	
支配性	34.62 (3.55)	34.08 (3.86)	34.96 (3.43)	0.62	
情熱性	31.25 (4.51)	32.28 (4.81)	34.46 (4.78)	5.88**	下 > 上
道德性	35.30 (5.16)	33.64 (5.23)	33.20 (4.63)	2.32	
大膽性	30.11 (5.60)	30.64 (4.74)	33.28 (3.79)	6.12**	下 > 上,中
敏感性	31.38 (4.87)	30.44 (4.09)	31.04 (4.67)	0.43	
不信感	34.87 (3.66)	35.22 (3.08)	34.98 (2.80)	0.12	
思辨性	28.09 (3.41)	28.69 (4.23)	28.76 (4.20)	0.41	
實利性	31.02 (3.81)	31.42 (4.21)	30.92 (3.41)	0.19	
罪責感	33.81 (5.34)	29.94 (4.65)	28.90 (4.99)	12.45**	上 > 中,下
進步性	33.68 (4.32)	35.50 (4.81)	34.70 (3.88)	1.87	
自己充足性	32.38 (3.42)	30.89 (4.21)	32.18 (3.83)	1.79	
統制力	33.85 (5.01)	34.08 (4.28)	33.44 (4.45)	0.22	
不安感	32.59 (5.55)	30.56 (4.96)	28.64 (4.39)	7.55**	上 > 下
높은 知能	11.56 (2.62)	12.19 (2.01)	11.84 (1.93)	0.75	

(Table VIII) 四象尺度를 이용한 判別分析 結果 24)

判別방정식 1)

$$D = -75.2107 + 0.6017 \times SA - 0.5989 \times SC - 4.1983 \times SE - 1.4954 \times SF - 1.0726 \times SG + 1.8673 \times SH - 1.8244 \times SI - 0.5990 \times SL + 1.2331 \times SM + 1.0118 \times S_N - 0.9473 \times SO + 1.1576 \times SQ1 + 2.5859 \times SQ2 + 4.3112 \times SQ3 + 0.3172 \times SQ4 - 2.3311 \times SB - 5.1196 \times FQ1 + 0.9664 \times FQ2 - 0.9664 \times FQ3 - 2.7046 \times FQ4$$

判別방정식 2)

$$D = -37.9403 + 0.0254 \times SA + 0.1267 \times SC - 0.1423 \times SE - 0.0252 \times SF + 0.2725 \times SG + 0.2052 \times SH - 0.0673 \times SI + 0.2924 \times SL + 0.1261 \times SM + 0.2966 \times S_N + 0.2775 \times SO + 0.4278 \times SQ1 - 0.3363 \times SQ2 - 0.0287 \times SQ3 - 0.0362 \times SQ4 - 0.0765 \times SB - 0.6880 \times FQ1 - 0.0835 \times FQ2 - 0.7221 \times FQ3 - 0.3286 \times FQ4$$

Fcn	Wilks' Lamda	χ^2 -치	자유도	유의도
예 언 집 단				
	太陰	少陽	少陰	
실	太陰	6	0	0
계	6	(100.0%)	(0.0%)	(0.0%)
집	少陽	0	6	0
단	6	(0.0%)	(100.0%)	(0.0%)
	少陰	0	0	12
	12	(0.0%)	(0.0%)	(100.0%)
정확판별율 : 100.0%				
집 단 중 앙 치				
집단	FUNC 1	FUNC 2		
太陰 :	15.87	0.74		
少陽 :	-2.40	-2.70		
少陰 :	-6.74	0.98		

IV. 考 察

東洋의 思想은 實在의 本質속으로 꿰뚫고 들어가는 直接的인 直觀위에 基礎하고 있고 西洋의 物理學은 科學의 實驗을 통한 自然現象의 觀察에 基盤을 두고 있으며 양쪽 다 그 觀察은 解析되고 이 解析은 자주 言語에 의해서 疏通된다. 그러나 東洋學에 있어서 實在에 대한 直接的인 體驗은

思惟와 言語의 領域을 超越하는 것으로 實在에 대한 言語的 記述은 어느정도 限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否認할 수 없다.²⁵⁾

四象醫學에 있어서의 體質에 對한 概念 亦是 外襟에 대한 分析的인 把握이나 斷片的인 觀察에 의해서 理解되거나 表現될 性質의 概念이 아니고 個人의 外貌나 性情, 生理나 病證이 모두 綜合된 하나의 體系, 즉 “象”이라는 抽象的 概念에 의해서 理解 되어질 수 있는 東洋思想의 特質을 內包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桌上空論이 아닌 實際 臨床에서 나타나는 現象들을 研究하기 위해서는 前述한 抽象의 概念들에 대하여 一般的으로 公認될 수 있는 普遍妥當한 理論을 定立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本 研究가 西洋 心理學의 高度로 分析的인 心理檢査方式에서 由來한 尺度로 四象醫學의 性情概念에 바탕하여 製作된 設問에 대한 妥當度を 測定해보고, 그 結果에 의해서 體質分析에 대한 客觀性を 確保해 보고자하는 것으로 相異한 學問體系에서 오는 難點들이 없지 않으나, 각 體質에 따른 生理, 病理, 辨證, 診斷 및 治療에 이르기까지 連繫성을 갖는²⁶⁾ 確固한 臨床體質醫學으로서의 四象醫學을 多角度로 再照明해보는 作業中の 하나로 意味를 賦與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四象體質分類檢査의 設問內容에 대한 妥當度を 測定하기 위하여는 間接的인 方式의 測定道具를 쓸 必要가 있기 때문에 韓國의 實情에 맞도록 製作된 性格要因檢査라는 도구를 使用해 보았다.

性格要因檢査에 있어서의 實施客觀性 및 採點客觀性은 매우 높은 편이며²⁷⁾ 本 研究에 있어서 四象體質分類檢査와 有意성이 確認된 要因들의 問項適格度 및 信賴度 亦是 良好할 뿐 아니라²⁸⁾ 韓國人의 意識構造에 맞게 製作된 檢査라는 點에서 四象體質分類檢査 說問紙의 妥當度 檢證에는 대단히 有效한 도구가 된다고 하겠다.

本 研究는 먼저 四象尺度와 性格要因檢査의 尺度들과의 相關關係를 分析하여 四象體質分類檢査 說問紙에 收錄되어 있는 各 尺度들에 대한 內的인 妥當度を 檢證하고, 그 다음에 四象尺度에 있어서 各 尺度의 點數分布를 上, 中, 下 세개의 集團으로 나누어 性格要因檢査의 各 尺度別 平均差異를 變量分析하여 特性差異를 알아보는 方式을 取하였다.

相關關係를 分析한 結果는 太陽尺度에 있어서

는 溫情性, 情熱性, 大膽性 및 自我強度의 尺度에서 有意한 反應을 나타냈는데 이 尺度들은 共通的으로 外向的인 特性을 表現하는 것으로 性格要因檢査의 要因解析을 拔萃, 參照하자면 다음과 같다.

溫情性要因이란 마음가짐이 善良하고 多情多感하며 社交性이 있고 樂天的이며 생각이나 느낌을 負擔없이 말하는 性格類型을 말한다.

또한 柔軟하고 寬大하나 남의 批判에 무디고 規範을 어기기도 하며 때로는 情緒的, 衝動的인 경우가 있고 꼼꼼한 일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²⁹⁾

性格要因檢査의 C要因(自我強度 尺度)에서 높은 點數를 얻은 사람은 강한 自我強度를 지니는 性格類型을 갖는데 강한 自我強度란 情緒的인 安靜, 成熟된 自我, 難關突破能力, 現實性, 沈着性, 철저함, 自信感, 樂觀的인 態度 등으로³⁰⁾ 要約해 볼 수 있다.

F要因(情熱-慎重性 尺度)에서 높은 點數는 一般的으로 情熱的, 社交的, 率直性, 融通性, 積極性, 不注意하고 衝動的인 性向, 指導的인 役割等의 性格類型³¹⁾이라고 할 수 있다.

H要因(大膽-小心性 尺度)의 높은 點數는 大膽性을 가지며, 社交的, 自發的, 冒險的, 率直, 親切, 活氣, 호탕, 衝動的이며, 배짱이 있고 앞서기 좋아하는 등의 性格特性을 갖는다.³²⁾

한편 特性差異를 알아보기 위한 性格要因檢査 尺度別 變量分析에서는 太陽集團에서 自己充足性 尺度에서의 差異가 나타났는데 自己充足性의 尺度는 一般的으로 自己中心的이고 自立的이며 自己方式에 익숙하고 혼자서 判斷하고 行動하는 性格傾向을 意味하는 것으로 太陽集團이 外向的인 면서 自己愛的 性格特性의 心理構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解析된다.

東醫壽世保元上에서 太陽人은 <性質長於疏通

而 材幹能於交遇>라 하여 무슨 일이나 막힘이 없이 탁 트이게 處理하고 材幹은 친구들과 사귀는 일에 有能하다고 하고 <性質疏通 又有果斷>이라하여 남과 잘 疏通하고 果斷성이 있다³³⁾고 한 內容들이나, 高³⁴⁾등의 進就성이 뛰어나고, 積極的이고 推進力이 있으며 英雄心, 自尊心, 誇張心이 강하고 創意力이 있으며 計劃성이 적고 後悔하지 않는다고 한 內容 등에서 太陽人의 性格類型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上記의 性格要因檢査의 要因解析과 어느 程度 相通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結果的으로 太陽尺度的 內的信賴度を 確認해 볼 수 있다.

少陽尺度的 相關關係에 있어서는 다른 尺度들과는 相關關係가 없고 情熱性과의 正的相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少陽集團의 性格要因檢査 尺度別 變量分析에서는 溫情性과 大膽性尺度的 集團差異가 나타나서 少陽集團의 外向性이 外向的 尺度上에서 두드러지게 表現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少陽人에 대한 東醫壽世保元上의 敘述은 <長於剛武而 材幹能於事務>라 하여 성질이 대쪽같이 곧고 단단하며 材幹은 公私間에 利害를 超越하고 處理하는데 有能하다고 했으며 또한 <剽銳好勇>, 즉 말하는 것이나 몸가짐이 輕率하고 날래며 勇猛을 좋아한다³⁵⁾라고 한 것 등이며, 高³⁶⁾등은 少陽人은 理論的이 되지 못하고 무척 輕率하며, 開拓하는 데는 長技가 있으나 組織이나 마무리에는 不足하고, 奉仕精神이 강하며, 判斷力은 빠르나 計劃성이 적고, 항상 明朗하며 熱情的이고 率直한 性格特性을 갖는다는 등으로 敘述하고 있다.

性格要因檢査의 情熱性 尺度는 外向的 尺度의 하나로 少陽尺度에서 높은 點數를 얻은 應答者가 基本的으로 外向的이라고 하는 意味를 갖지만 情熱性 尺度의 要因 解析과 少陽人 性格特性의 解

說이 合致되는 部分이 많은 것은 이 尺度의 信賴度を 相對的으로 높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太陰尺度 및 少陰尺度的 相關關係에 있어서는 太陽尺度, 少陽尺度和 거의 反對的 傾向을 보이는데 이것은 陽人과 陰人의 外向性 및 內向性을 示唆하고 있는 內容이라고 하겠다.

太陰尺度에서는 溫情性, 自我強度, 情熱性, 大膽性 등의 尺度에서 否的相關을 보이는데 要因解析部分을 拔萃, 參照하자면 다음과 같다.

溫情性 尺度와의 否的相關은 冷情한 마음씨를 가지며 수줍고 서먹서먹하고, 社交性이 不足하며 批判的이고 不信에 차 있으며 實利的이고 꼼꼼하며 혼자 하는 일을 편하게 느끼는 등의 性格傾向을 갖는다.³⁷⁾

自我強度 尺度와의 否的相關이란 一般的으로 情緒的 不安定感을 보이는 未成熟한 傾向을 말하는데 理性보다는 感性의 影響을 받고 나약하며, 잘 당황하고 責任을 回避하려는 등의 屬性을 말한다.³⁸⁾

情熱性과의 否的相關은 一般的으로 慎重하고 말이 적고 內性的인 性格으로 不安定하고 疑心이 많으며 強迫的이고 悲觀的, 厭世的인 性格類型을 말한다.³⁹⁾

大膽性과의 否的相關은 一般的으로 小心하고 수줍으며 감상感傷的인 性格으로 細心, 冷淡하고 劣等感이 있으며 非社交的인 性向의 性格類型을 말한다.⁴⁰⁾

太陰尺度는 또한 罪責感 尺度和 正的相關關係(positive correlation)를 갖게 되는데 罪責感과의 正的相關은 一般的으로 確信感이 不足하고 걱정, 不安, 憂鬱感이나 罪責感을 갖기 쉬운 性格으로 義務感이 강하며 자신에 대해서 程度以上으로 期待하는 性向을 갖고 自尊心이 잘 상하며 恐怖症이나 健康 念慮症 등을 갖고 있는 性格類型을 말한다.⁴¹⁾

太陰集團의 性格要因檢査 尺度別 變量分析에서는 敏感性 尺度에서 追加의인 集團差異를 볼 수 있는데 이 結果에서는 太陰集團의 內向의 性向 및 敏感性 傾向, 즉 銳敏하며 柔軟하고 多情多感하며 感傷의인 性格 및 罪責感, 다시말해 憂鬱하고 걱정스러우며 罪責感에 사로잡히는 性向 등을 把握할 수 있다.

太陰人에 대한 四象醫學에서의 性情類型은 다음과 같다.

먼저 東醫壽世保元上의 內容은 <長於成就而 材幹能於居處>라 하여 무슨 일이나 着手한 것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忍耐力과 持久力이 강하고 材幹은 一定한 곳에 오래 참고 견디며 居處하는데 有能하다고 했고, <起居有儀而 修整正大>라하여 몸가짐에 威儀가 있고 무슨일에도 잘 가다듬으며 公明正大한 態度를 갖는다고 한 것들이다.

高⁴²⁾등의 資料에서는 驕慢해 보이며 음흉하고 慎重하며 忍耐力이 강하고 慾心이 많은 등의 性情을 갖는다고 했다.

少陰尺度에 있어서는 太陰尺度와 마찬가지로 溫情性, 情熱性, 大膽性 尺度와 否의 相關, 罪責感 尺度와의 正的 相關關係(positive correlation)를 나타냈다.

性格要因 解析에 依하면 不安感 尺度와의 正的 相關은 一般의으로 緊張되고 不安焦燥해 하며 잘 참지 못하고 지나치게 몰아세우며 쉽게 疲勞感을 느끼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性格으로 挫折感의 解消가 잘 안되는 類型을 말한다.⁴³⁾

少陰集團의 性格要因檢査 尺度別 變量分析 結果로 少陰集團 역시 內向性 및 不安心理를 表出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廉과 金의 性格要因 分析에 依하면 不安感尺度는 不安하고 挫折되며 緊張된 傾向을 말하는 것으로, 太陰集團의 心理 性向과 比較해 볼 때 少陰人의 不安狀態가 겉으

로 드러나 보이는 所謂 身體的인 不安狀態인데 比하여 太陰人의 性向은 罪責感 性向에 의해 不安한 心理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감춰진 不安狀態라는 것을 類推해 볼 수 있다.

少陰人에 대한 四象醫學的 敘述은 다음과 같다.

壽世保元에서는 <長於端重而 材幹能於黨與>라 하여 端正하고 沈着하며 무슨 일이나 沈着하게 생각하고 材幹은 組織과 處理하는데 有能하다고 했고, <體任自然而 簡易少巧>라하여 몸가짐은 자연스럽고 簡易하며 잔재주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高⁴⁴⁾ 등의 資料에 依하면 性格이 緻密하고 內性的이며 利己主義的 性向을 보이고, 外柔內剛하며 聰明하고 꼼꼼하며 迫力이 없는 등의 性格特性을 지닌다고 했다.

위에서 敘述한 바의 太陰尺度와 少陰尺度의 差異를 考察해 보면 두 尺度에서 모두 內向的인 屬性이 發見되지만 太陰尺度에서는 內的으로 自信心이 없는 特性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少陰尺度에서는 外的으로 緊張되어 不安定한 特性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結論

本 研究은 四象醫學에 있어서 臨床的 基礎가 되는 四象體質分類의 客觀性을 높이고자 하는 目的으로 여러 段階를 거쳐 製作된 四象體質分類檢査 設問紙에 對하여 一般 心理性格檢査의 하나인 16PF(性格要因檢査)를 利用한 準據妥當化의 可能性을 分析하고자 試圖되었다.

設問의 應答資料를 收集하여 統計處理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이 導出되었다.

1. 四象尺度와 性格要因檢査의 相關關係를 알 아본 結果, 太陽尺度和 少陽尺度에서는 性格要因 檢査의 內-外向性的인 尺度들에서 外向的인 反應 을 나타내었으며, 太陰尺度和 少陰尺度에서는 內 向的인 反應들이 나타나 設問檢査紙의 內的妥當 度가 確認되었다.

2. 四象尺度的 點數分布를 세 集團으로 分類하 여 性格要因檢査의 尺度別 平均差異를 變量分析 해 본 結果 다음과 같은 各 集團의 特性이 抽出 되었다.

- ① 太陽集團은 外向的인면서 自己愛的 性格特 性을 갖는다.
 - ② 少陽集團은 두드러진 外向性을 띄었다.
 - ③ 太陰集團에서는 內向的 性格傾向 및 감추어 진 不安感이 確認되었다.
 - ④ 少陰集團에서는 內向的 性格傾向 및 겉으로 드러나는 身體的 不安狀態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四象體質分類를 위해, 四象體質分類檢査와 性格要因檢査의 尺度들을 함께 使用한 結果 診斷正確率의 鼓舞的인 向上이 確認되어 體 質分類方法에 性格要因檢査의 尺度들을 導 入해 보는 方法을 考慮해 봄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4. 女性集團에서의 統計處理에서는 有意性이 전혀 發見되지 않아, 向後 設問의 作成에 있어서는, 男性集團과는 다른 次元에서의 女性의 心理에 附合하는 設問問項이 導入되 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以上の 結果로 보아 設問方式을 통한 四象體質 分類檢査가 補完해야 할 약간의 問題를 包含하고 있긴 하지만 그 妥當度는 立證되었으면, 統計分 析에서 16PF의 導入에 의해 四象體質 診斷 正確 率의 向上 및 客觀性 確保 등의 問題가 進一步

할 수 있는 可能性을 示唆하고 있다.

參考文獻

1. 廉泰鎬, 金正圭 : 性格要因檢査 實施要綱과 解析方法, 서울, 한국심리적성연구소, 1990.9.p.12,13,15,17,19,20,24,25,26,28,43, 44,45,54,55,64,74,93,110.
2. 이영준 : SPSS/PC+를 이용한 다변량 분석, 서울, 도서출판 석경, 1991.6. pp.141-166, 276-303, 387-438.
3.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서울, 杏林書院, 1979.
4. 洪淳用, 李乙浩 :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 출판, 1989, p.18,45,49,135,136,405.
5. 高炳熙, 宋一炳 : 四象體質辨證에 對한 小考, 大韓韓醫學會誌 9號, 1985.
6. 權英植 : 四象鑑別法에 對하여, 醫林 97호, 1973.
7. 金文星 : 四象體質鑑別法과 經驗方公開, 大韓韓醫學會報 21호, p.40-41, 1966.1.
8. 羅基成 : 四象鑑別과 體質鍼, 生藥과 韓醫藥 30호, 31호, 1978.
9. 김수범 : 四象體質鑑別을 위한 專門家 시 스템의 知識 베이스 構築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0.
10. 朴奭彦 : 四象頭部觸診法, 醫林 147호, 1982.
11. 朴寅商 : 四象鑑別에 對한 小論, 火曜韓方 1호, 1972.
12. 卞柱然 : 四象體質鑑別論, 科學教育 208,209호, 1982.1.
13. 成守慶 : 四象醫學 體質鑑別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68.

14. 宋一炳 : 李濟馬 哲學의 學問의 背景과 四象醫學 成立에 對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Vol.3. No.1. 1991, p.2.
15. 오세정 : 東醫壽世保元에서 본 四象人 體質鑑別法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6.
16. 오세정 : 四象人의 體質鑑別法 研究-東醫壽世保元을 中心으로- 慶熙大 博.碩士學位論文 集 3호, p.569, 1980.
17. 鄭成忠 : 四象體質鑑別에 對한 客觀의 研究, 醫林 151호, 1982.9.
18. 韓熙錫 : 四象體質鑑別, 藥業新聞(1-5), 1971.7.26.
19. 韓熙錫 : 四象體質鑑別의 概要, 東洋醫學 5호, 1976.10.
20. 韓熙錫 : 내가보는 鑑別法, 火曜漢方 3호, 1973.
21. 韓熙錫 : 내가보는 四象鑑別法, 醫林 49호, p.24, 1965.
22. 허만희 : 四象人의 形態學의 圖式化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23. Fritjof Capra 著, 李成範, 金鎔貞譯 : 現代物理學과 東洋思想 서울, 범양사출판부, 1989, 4. pp.49-51.

註

- 1) 宋一炳 : 李濟馬 哲學의 學問의 背景과 四象醫學 成立에 對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Vol. 3.No.1.1991, p.2.
- 2) 壽世保元에 敍述된 바, 哀怒喜樂之氣의 作用이 四象人의 臟腑形成에 미치는 影響이라든지 <아래 ①>, 哀怒喜樂의 陰陽升降의 作用에 關한 內容 <아래 ②>에서 性情이 人體에

수 있다.

① 太陽人 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則氣注肺而肺益盛 怒情促急則氣激肝而肝益削 太陽之臟局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以哀情促急 怒性宏抱則氣注脾而脾益盛 哀情促急則氣激腎而腎益削 少陽之臟局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以樂情促急 喜性廣張則氣注肝而肝益盛 樂情促急則氣激肺而肺益削 太陰之臟局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而喜情促急 樂性深確則氣注腎而腎益盛 喜情促急則氣激腎而腎益削 少陰之臟局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② 哀怒之氣上升 喜樂之氣下降 上昇之氣過多則下焦傷 下降之氣過多則上焦傷

- 3) 李乙浩 : 四象醫學 解說-四象醫學原論 p. 405
- 4) 洪淳用, 李乙浩 : 四象醫學原論 p.18
- 5) 四象鑑別과 體質鍼 : 羅基成, 生藥과 漢醫藥 30호, 31호, 1978
- 6) 四象鑑別法에 對하여 : 權英植, 醫林 97호, 1973
- 7) 四象鑑別에 對한 小論 : 朴寅商, 火曜漢方 1호, 1972
- 8) 四象頭部觸診法 : 朴爽彦, 醫林 147호, 1982
- 9) 四象體質鑑別 : 韓熙錫, 藥業新聞(1-5), 1971.7.26.
- 10) 四象體質鑑別論 : 卞柱然, 科學教育 208,209호 1982.1
- 11) 四象體質鑑別法과 經驗方公開 : 金文星, 大韓漢醫學會報 21호, p.40-41, 1966.1
- 12) 四象體質鑑別에 對한 客觀의 研究 : 鄭成忠, 醫林 151호, 1982.9
- 13) 四象體質鑑別의 概要 : 韓熙錫, 東洋醫學 5호, 1976.10
- 14) 내가보는 鑑別法 : 韓熙錫, 火曜漢方 3호, 1973

- 1991.
- 18) 東醫壽世保元에서 본 四象人 體質鑑別法 研究 : 오세정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6.
- 19) 四象醫學 體質鑑別에 관한 研究 : 成守慶,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68.
- 20) 四象人의 體質鑑別法研究-東醫壽世保元을 中心으로- : 오세정 慶熙大 博. 碩士學位論文 集 3호 p.569, 1980.
- 21) 金善豪 : 慶熙大學校漢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 22) 廉泰鎬, 金正圭 : 性格要因檢査 - 上記 檢査는 R.B.Cattell이 製作한 <16性格要因檢査(Sixteen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를 著者들이 韓國의 實情에 맞도록 修整, 補完하여 開發한 一般 心理性格檢査이다.
- 23) 가장 一般的인 妥當度에 關한 定意는 測定하고자 하는것을 實際로 測定하고 있는가 하는 質問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質問은 지금 무엇(what)이 測定되고 있는가에 強調點을 두고 있다. 內容妥當度는 測定道具가 갖고 있는 內容 즉 實體 素材 論材의 代表性(representativeness), 또는 標集適切性(sampling adequacy)을 意味한다.
- 24) 判別方程式 1)과 2)에서 SA는 冷-溫情性, SC는 自我強度, SE는 服從性 및 支配性, SF는 情熱性 및 慎重性, SG는 道德性強度, SH는 大膽性 및 小心性, SI는 敏感性 및 強韌性, SI은 不信 및 信賴感, SM는 思辨性 및 實際性, SN은 實利性 및 純眞性, SQ1은 進歩性 및 保守性, SQ2는 自己充足性 및 集團依存性, SQ3은 統制力強度, SQ4는 不安感 및 弛緩感 尺度를 各各 나타낸다.
- 위의 方程式 中 判別方程式 1)이 Wilks' 圓이 15.87, 少陽集團이 -2.40, 少陰集團이 -6.74, 方程式2에 의한 中央置는 太陰集團이 0.74, 少陽集團이 -2.70, 少陰集團이 0.98로 計算되었다.
- 25) Fritjof Capra著 李成範, 金鎔貞譯 : 現代物理學과 東洋思想 p.49, 51
- 26) 高炳熙, 宋一炳 : 四象體系辨證에 對한 小考, 大韓漢醫學會誌 9號, 1985
- 27) 廉泰鎬, 金正圭 : 前掲書 p.12
- 28) 廉泰鎬, 金正圭 : 前掲書 p.12,13.15.17.19. 20.24.25.26.28
- 29) 廉泰鎬, 金正圭 : 前掲書 p.43-44
- 30) 廉泰鎬, 金正圭 : 前掲書 p.54
- 31) 廉泰鎬, 金正圭 : 前掲書 p.64
- 32) 廉泰鎬, 金正圭 : 前掲書 p.74
- 33) 洪淳用, 李乙浩 : 四象醫學原論 p.135-136
- 34) 高炳熙, 宋一炳 : 四象體質辨證에 關한 小考, 大韓漢醫學會誌 9호, 1985
- 35) 洪淳用, 李乙浩 : 四象醫學原論 p.135-136
- 36) 高炳熙, 宋一炳 : 四象體質辨證에 關한 小考, 大韓漢醫學會誌 9호, 1985
- 37) 廉泰鎬, 金正圭 : 前掲書 p.44-45
- 38) 廉泰鎬, 金正圭 : 前掲書 p.55
- 39) 廉泰鎬, 金正圭 : 前掲書 p.64
- 40) 廉泰鎬, 金正圭 : 前掲書 p.74
- 41) 廉泰鎬, 金正圭 : 前掲書 p.93
- 42) 高炳熙, 宋一炳 : 四象體質辨論에 關한 小考, 大韓韓醫學會誌 9호, 1985.
- 43) 廉泰鎬, 金正圭 : 前掲書 p.110
- 44) 高炳熙, 宋一炳 : 四象體質辨證에 關한 小考, 大韓韓醫學會誌 9호 , 1985.

ABSTRACT

The Validation Study of the 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Comparative Analysis with Sixteen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16PF)

Jung-Chan Lee, Byung-Hee Ko, Il-Byung Song
Dept. of Constitutional Medicin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validation about 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which has been made through several stage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objectivity of Sasang constitutional classification.

The results of statistical research about the responses data of Sasang Questionnaire are as follow:

1. In the case of mutual relation between the items of the QSCC(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and 16PF, every item displayed significant result.(in male group)
2. In the investigation to classify the score distribution of Sasang items three groups and analyze the gap of mean value in each item of 16PF, the characters of each Sasang group were turned out as follows:
 - ① The Tae-Yang group has extrovert and narcissistic inclination.
 - ② The So-Yang group shows remarkable extrovert inclination.
 - ③ The Tae-Eum group has hidden fear and introvert inclination.
 - ④ The So-Eum group has revealed physical instability and introvert inclination.
3. The statistical research of female group didn't display any significant result. It will be necessary to analyze the respondent shape of female group and introduce new items to coincident with feminine psychology.
4. In the research using 16PF accompany with QSCC in order to classify the Sasang constitution, the accuracy rate of diagnosis showed inspiring elevation. For that reason, it seems to be desirable to introduce some items of 16PF into QSCC.

According to above results, although QSCC contains several problems to be solved, its validity was proved, and the analysis of statistics suggests the possibility to step forward by introducing 16PF in some problems of promoting the accuracy of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is, assuring the objectivity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and so on.